

# 『제33회 도시 및 지역 정보시스템 학회(URISA) 학술대회 참관기』

**이 우 종**  
(경원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제33회 URISA(Urban and Regional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 학술대회가 1995년 7월 16일~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되었다. URISA 학회는 정책결정자, 학자, 전문기술자 등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여 정보체계(Information Systems)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최근의 기술발전과 경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場으로서 올해의 주제는 “Information Technology Linking the Americas... Your Network To An Expanded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다.

올해의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URISA 학회는 그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주로 미국내에 국한되어 있던 정보전문가들의 연계를 세계에까지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다. 또한 샌·안토니오는 그 도시 중심부의 'River Walk'의 경관이나 컨벤션센터, 호텔등이 국제적인 학회를 치루기에 손색이 없어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에 적절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URISA 학회는 1963년에 창설되어 30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북미지역 및 세계에서 26개국의 3,7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연방, 주, 지방정부의 전문직공무원, 정보체계개발업자, 학자, 전문기술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URISA 학회는 그 관심분야에 따라 Administration &

---

Management, DP/Information System, Engineering, Environment, GIS/Mapping, Land Management, Public Safety, Public Utility, Public Works, Research & Education, Sales & Marketing, Transportation, Water & Wastewater, Zoning & Planning, Other 등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올해 URISA학술대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되기 전날인 7월 16일에는 “Pre-Conference Workshop”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Introduction to GIS’등 28개의 토픽을 가지고 각 토픽마다 2~3명의 강사가 주제별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의 4일간에 걸쳐서 본격적인 논문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올해에는 Public Works, Urban and Regional Planning, GIS Management and Operations, Land Records, Data, People and Places, Public Safety, Research and Technology, Strategic Partnerships,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Solution for Success:The Industry,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11개 트랙으로 나뉘어져 약 250여편의 논문이 Centro, River, Fiesta, Plaza, Patio등의 이름이 붙여진 20여개의 샌·안토니오 컨벤션센터의 Conference Rm에 분산되어 진행되었다. 이중 20여편의 주제에 대해서는 Panelist들을 정하여 심포지움형식으로 토론하는 형태로 꾸며졌으며 한국사람으로는 김형복(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이창무(Univ. of Pennsylvania), 이봉규와 김종훈(Cornell Univ. &

KIST)등 3건의 발표가 있었는데 본인의 관심분야였던 이창무씨의 발표는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다.

또한 7월 17일 오전 모든 논문발표에 앞서 있었던 선마이크로시스템 컴퓨터회사의 John Gage씨의 “Cyber Jockeying in the 21th Century”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그 외에도 매일 논문발표 시작 전에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번 URISA학술 발표대회에는 미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등 200여개의 단체회원(Institutional Members)과 2,500여명의 개인회원들이 참가하였는데 첫날 Opening Session에서는 지난 일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하여 각종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URISA의 창설자인 Ed Horwood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에 제정된 Horwood Critique Prize등 여러 가지의 명칭이 부여된 상이 10여명의 수상자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ESIG(Exemplary Systems In Government)상이 시상되었는데 이 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써 San Diego, CA., Barry County, MI., Queensland, Australia등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Corporate System Award, Small Municipality Systems Award 등의 여러가지 명칭으로 상이 수여되었다.

URISA의 학술대회는 매년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역시 19종류의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각종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의 관심 분야와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었다. 특히 Project Showcase와 Data Fair 등의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자신이 수행한

---

작품들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ESIG의 수상자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Data Fair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URISA의 학술대회기간 중에는 옵션으로서 Technical Tour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약 12곳에 대한 현장답사기회를 마련하였는바 7월 16일에서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논문 발표와 동시에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URISA학술발표대회가 열리는 전 기간동안에는 GIS에 관계된 컴퓨터 회사들의 전시회가 Exhibit Hall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100여개 이상의 회사들이 자기회사의 하드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테모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금하기도 하고 회사홍보를 위한 각종 자료 및 기념품들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기술의 현장을 살감케 하고 있었다.

올해의 URISA학술대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교적 모임인 'Social Events'를 기획하였다. 7월 17일에는 'A Night in Old San Antonio'라는 명제로 7월 19일에는 'A Taste of Texas History'라는 명제로 각각 La Villita라는 오래된 작은 마을과 Univ. of Texas at San Antonio의 Institute of Texan Culture에서 개최되어 미국 텍사스의 역사와 음식, 춤미 등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많은 학회 참석자들과 친분을 나

눌 수 있었다. 특히 본인은 1992년 Portland State Univ.에 Visiting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할 당시 협력교수였으며 1984년도 URISA학회장을 지낸바 있는 Kenneth J. Dueker교수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전하였으며 안면이 있던 David D. Moyer(1990년도 URISA 학회장)등과도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끝으로 7월 20일에는 오전에 논문 발표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 Closing Luncheon으로 1995년도 URISA학술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를 총정리하는 URISA회장의 폐회사 등의 폐막행사가 있었으며 학술대회기간중에 찍었던 각종 이벤트의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비춰주며 회상에 잠기기도 하였다. 제34회 URISA학술대회는 199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Utah주의 Salt Lake City에서 개최한다는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났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한국GIS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한국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참석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술대회장을 나섰다.

